

앱 통한 카드론 대출, 사기죄 아니다



김 지 혁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法

최근 대법원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카드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행위를 두고, “애플리케이션 기반 대출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18441 판결). 대법원은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거액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피해자 카드사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850만원의 카드대출을 신청했다. 이외에도 복수의 카드사로부터 총 1억원이 넘는 대출을 같은 날 동시다발적으로 신청해 받았다. 피고인은 거래처에 지급할 대금과 사채 채무가 2억원 상당에 달했으며, 지인들에 대한 채무 또한 1억원 상당에 육박한 상태였다. 매월 변제해야 하는 카드 대출 원리금이 피고인의 월수입을 초과하는 등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동시다발적으로 카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다수의 카드사로부터 동시에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것이다.

1심 법원과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사실상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카드사들을 기망해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사기죄 성립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존 판례들을 인용하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착오를 일으키게 해야 성립하는 범죄”라는 점을 확인하고,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즉, 사람이 아닌 전산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행위에는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기 위해 휴대전화에 설치된 피해자 회사들의 애플리케이션은 자금용도, 보유자산, 연소득정보, 부채정보, 연소득

대비 고정 지출, 신용점수 등을 입력한 데 따라 대출이 전산상 자동적으로 처리되어 송금받을 계좌로 대출금이 송금된다. 실제로 그 대출신청을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에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대출신청을 확인하거나 대출금을 송금하는 등으로 개입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대출 신청 과정에서 입력한 정보가 허위사실이 라고 하더라도, 대출 신청과 승인, 송금 등 모든 절차가 카드사 직원의 개입 없이 전산으로 자동 처리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기망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피고인이 대출 신청 과정에서 입력한 정보가 기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전자적 방식으로 이뤄지는 금융거래에서의 형사책임 범위를 재정립한 판결로 평가된다. 특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대출이 일상화된 금융 환경에서 ‘기망행위’의 대상이 사람인지 여부가 사기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기준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무법인 바른

오프라인 유통업 경고음에 지방부터 흔들린다



기지 수집

안 재 선
(유통&라이프부)

“당장 식재료를 사야 하는데, 집 앞이 아닌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멀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방에 마트 하나 없어지는 것은 지역민들에게 큰 타격입니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최근 임대점주들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한 마트 점포 폐지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자, 한 지역민이 건넨 말이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마트 방문이, 누군가에게는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옆 동네에 땀을 흘리며 다녀와야 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 되었다.

마트만의 일이 아니다. 최근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자산

유동화를 이유로 하나둘씩 지방 점포를 폐점하며 살길을 도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랜드 리테일의 경우에도 지난 2020년부터 잇따라 점포를 폐점하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대구 동아아울렛, 뉴코아아울렛 안산점, 모란점 등 주요 매장들이 문을 닫았고, 지난해에는 부산의 NC백화점 서면점이 문을 닫았다. 매출이 나오지 않는 점포를 정리하고 도심형 아울렛으로서 새로운 공간 혁신에 나선다는 전략에서다.

악순환의 반복이다.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탓에 지방을 거점으로 하는 오프라인 유통 매장에서는 매출이 나오기 쉽지 않다. 그렇게 유통기업들이 매장을 철수하고, 폐점하면서 유통 인프라는 다시 약해진다. 이같이 점포 수가 줄면서 지방상권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으니 해당 지역에는 거주민들이 몰리지 않는 구조가 계속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이다. 대표적으로는 해묵은 마트 규제를 풀어야 한다. 월 2회 공휴일 의무 휴업, 영업시간 제한, 온라인 주문 배송 서비스 제한 등의 여건을 풀어 자유로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매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규제는 풍선효과를 야기한다. 풍선효과는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다른 곳의 문제를 막기 위해 인위적인 규제를 가하면, 그 억눌린 문제점은 또 다른 곳에 문제로 튀어나오는 현상을 지칭한다.

지방 상권 타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어느 곳부터 손을 봐야 하는지,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되짚어 봐야 한다. 경기 침체로 지방 상권이 무너지고, 다시 인구가 모여들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할 때다.

/wotjs4187@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6월 2일 (금 5월 7일) <http://www.saju4000.com>

취

36년생 강물이 바다로 진출하니 소식이 온다. 48년생 배우자가 있어도 허깨비. 60년생 밖은 한여름이나 내 마음은 동지선달. 72년생 부모님의 믿음과 너그러운 마음을 저버리지 말도록. 84년생 느긋하게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다.



소

37년생 길 떠나려는데 폭풍을 만나니 준비를 철저히. 49년생 두드리면 열릴 문이다. 61년생 이웃과의 거래가 쉽게 풀리지 않는다. 73년생 모난 돌이 정맞으니 잘난 척은 그만. 85년생 남이 차린 밥상을 내 것으로 착각하지 말도록.



톈

38년생 자식이 손을 벌리니 지갑이 계속 빈다. 50년생 채무가 흐지부지될 수 있으니 문서로. 62년생 멀리 있는 친구가 소식을 전한다. 74년생 입이 겹칠하면 주변을 시끄럽게 하는데. 86년생 정확한 거절이 일을 쉽게 풀리게 한다.



토끼

39년생 가벼운 산책으로 건강을 보살펴라. 51년생 크게 한번 날아오를 기회가 온다. 63년생 까마귀 노는 곳에 백도둑 늘 갈 수 있다. 75년생 하나를 투자해도 둘이 들어오는 좋은 날. 87년생 버릴 수 있다면 아직 헛계는 아니다.



용

40년생 같은 뱀띠 4월생과 언쟁하지 마라. 52년생 영어로 승부를 낼 수 있으니 외국어를 열심히. 64년생 이성보다는 부모님을 찾아뵙도록. 76년생 어디로 떠나도 목적지에 도착하는 날. 88년생 명예도 줄어지지만, 실속은 속 빈 강정.



뱀

41년생 내가 먼저 믿어야 남들도 믿는다. 53년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날 같으면 좋겠다. 65년생 행운을 위해 준비하라. 77년생 새롭게 돌아가는 소소한 즐거움이 생긴다. 89년생 목마를 때 물을 보가라도 하듯이 귀인이 온다.



말

42년생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마라. 54년생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는 없으니 욕심을 버려라. 66년생 입으로도 웃으면 화가 물러날 것이다. 78년생 번뇌가 생기나 오 후에 해결. 90년생 천신만고 끝에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기쁨이 있다.



양

43년생 종일 마음만 바쁘다. 55년생 깊은 물에 물고기가 모이는 법이니 아량을 갖자. 67년생 남의 것을 욕심내면 내 것이 2배로 나가는 게 이치. 79년생 삼각관계의 영계 있는 실타래가 풀림. 91년생 기다리던 소식이 나라 밖에서 들려온다.



원숭이

44년생 나이 드는 것이 서글퍼지는 하루. 56년생 내용보다 포장에 중요할 때도 있다. 68년생 집 나간 말이 가족을 일궈서 돌아오니 이득. 80년생 밝은 내뽕에 음주가 웬 말이던가. 92년생 다정도 병이니 집에서 지나친 잔소리는 금물.



닭

45년생 자식의 조언으로 일이 잘 풀린다. 57년생 낙숫물에 비위가 뚫리는 법이니 꾸준한 노력이 필요. 69년생 조상님 제사에 참석하도록. 81년생 제발 자신의 잣대로 남을 평가하지 마라. 93년생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내 손안에 있는데.



개

46년생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히니 서둘러 빼야 한다. 58년생 일취월장할 기회가 온다. 70년생 떠나기도 어렵고 머무르기도 난처하다. 82년생 인생 여정은 스스로 바른길을 찾아가야 하는 것. 94년생 부지런하다 보면 주변의 신뢰를 얻게 되니.



돼지

47년생 그물에 잡힌 물고기처럼 답답한 하루. 59년생 지인 관리를 잘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71년생 마음이 편안해야 일도 풀린다. 83년생 공부의 가르침을 교훈으로 살다보면 좋은 일이 올 것. 95년생 이성의 복덕이 두텁게 느껴지는 하루이다.

김상회의四季

과학과 신



서양에서 출발한 대표적 종교인 기독교에는 몇 가지 도그마(Dogma)가 있다. 성부 성자 성신이라는 삼위일체 사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유일신 개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서 모태에 의하지 않고 출생했다는 독생자 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착하게 살아도 모두 불지옥에 떨어진다는 생각 등이 대표적 도그마일 것이다. 그래서 종교는 과학의 대척점에 있다고 하는데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당연하다는 논리다. 대부분 종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적, 초월적인 정신세계를 대상으로 하기에 주관적 성향이 강한 종교와 객관성을 모토로 하는 과학은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것처럼 보인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종교가 설 자리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명백함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미신이라 치부하는 성향이 강하고 실제로 신비주의적인 허황됨으로 흑세무민으로 이끄는 경우가 적잖기 때문이다.

어떤 과학자들은 종교와 과학이 반드시 충돌하는 대척점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과학이 종교에서 말하는 여러 현상을 증명할 만큼 같 길에 더 있다고 보는 것이다. 과학의 대상은 물질과 자연과 지금 과학이 알아낸 것들은 아주 극소수여서 과학이 발달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미 있는 현상을 규명하는 중이다. 그 과정에 밝혀낸 이치를 이용하여 인류에게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과학이 발전하게 되면 종교에서 말하는 이치도 더 많이 밝혀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종교가 인간의 존재성과 근원, 그 실존에 대한 것이 대상이라면 과학 역시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이치가 같다는 데서 하는 주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양자 학자들이 밝혀낸 양자들의 운동 역학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마음의 움직임과 인식과 흡사하다는 논문은 위에 인용한 과학자의 주장과 상통하는 바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68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86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각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스도쿠

153문제

결란스도쿠110

중하스도쿠 12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도의 월드파일을 출간하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5

7

2

4

9

3

7

6

9

3

2

8

8

8

7

5

8

3

6

4

7

8

4

8

6

2

1

6

7

9

6

1

2

3

9

8

9

3

7

2

8

1

2

9

8

2

6

7

9

8

9

2

6

7

8

1

9

2

6

9

7

9

2

1

2

8

8

2

8

9

2

1

8

9

6

7

1

8

9

7

6

9

8

2

2

2

7

6

8

9

2

9

8

1

9

6

1

2

9

7

8

2

8

9

1

8

8

2

9

7

1

6

7

2

8

1

8

6

2

9

9

2

2

7

9

9

1

6

8

8

6

8

9

8

2

7

9

1

9

1

8

7

8

6

2

2

9

8

2

9

6

9

8

2

1

2

2

9

8

2

1

9

8

7

6

1

7

6

8

2

9

2

9

7

8

2

1

2

9

9

6

8

8

6

1

9

7

8

1

9

2

9

9

2

2

6

8

1

8

7

서울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한마당’ 개최

6월 ‘생태전환교육 행동의 달’ 지정

서울시교육청은 환경의 달인 6월을 ‘생태전환교육 행동의 달’로 지정하고, 2일부터 30일까지 ‘2025 서울 생태 전환교육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내 1395개 초·중·고등학교가 참여해 기후행동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생태전환교육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서울 전역에서 진행 ‘함께 하면 가능해! 지구를 위한 실천, 시작은 오늘부터!’라는 주제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물론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025 서울 생태전환교육 한마당’에서는 ‘함께 배우고, 함께 느끼고, 함께 행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말하고’의 5가지 생태전환교육 전략을 기반으로 ▲찾아가는 기후환경 교실 ▲명사 초청 주제 강연 ▲제로에너지 건축물 탐방 등 체험형 교육과, ▲시네마 그린틴, ▲스쿨 씨어터, ▲세계 청소년 기후 포럼 등 문화·토론 프로그램 등 총 14가지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행사 일정 및 자세한 내용은 ‘2025 서울 생태전환교육 한마당’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남양주시, ‘2035 환경계획’ 3.3조 투입

주광덕 시장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남양주시는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생태 도시 조성을 위한 ‘2035 남양주시 환경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최종 승인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환경계획은 ‘자연과 시민이 함께하는 에코시티 남양주 조성’을 비전으로, 총 11개 분야 60개 전략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대기·미세먼지 ▲통합물관리 ▲자원순환 ▲환경보건 ▲기후변화 대응 등 생활환경 전반을 포괄한다. 이를 위해 2035년까지 총 3조 2872억 원(연평균 2739억 원)이 투



입될 예정이다.

중점 전략사업에는 ▲시민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활권 내 녹지공간 확충 ▲남양주형 비점오염 마스터플랜 수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기후 위기·환경재난 대응 환경교육 강화 등이 포함된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사진)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태 도시 조성과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남양주(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한기대, ‘스텝’ 패키지 과정 확대 운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올해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스텝(STEP)’ 패키지 과정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고 1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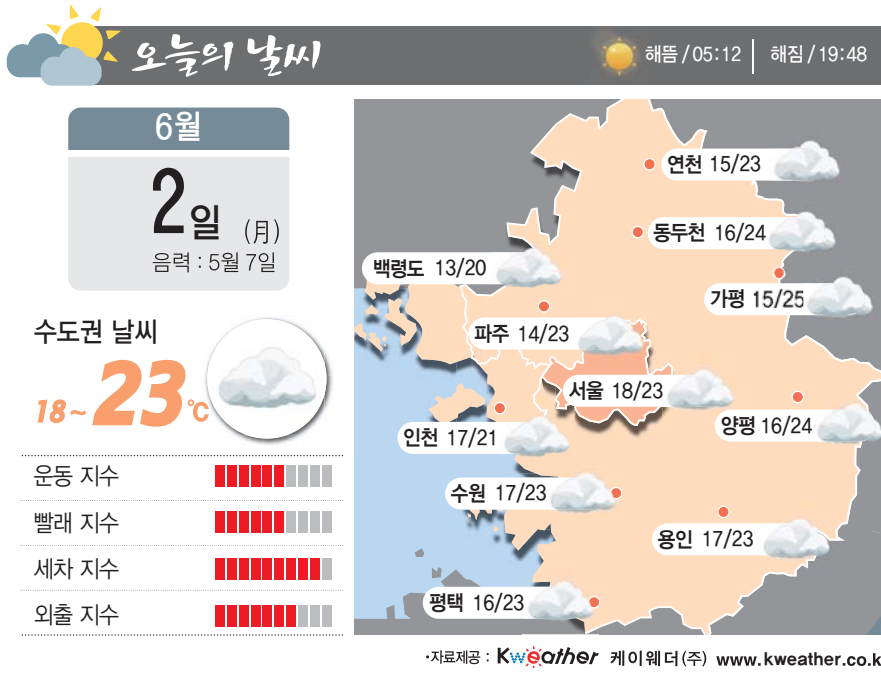
한기대 온라인평생교육원에 따르면, 2022년 3개 과정으로 시작한 스텝 패키지 과정을 올해 총 21개 과정 74개 과목으로 늘렸다.

새롭게 추가된 디지털·신기술 분야는 ▲챗지피티(Chat GPT) 개발 활용

▲태양광발전설비 ▲사물인터넷(IoT) 인프라 및 시스템 운영관리 ▲정보보안관리 등 4개 과정으로, 기존 12개 과정과 합쳐 총 16개 과정 54개 과목을 운영한다.

일반직무역량분야에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 ▲전기자동차 이해와 고장진단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 5개 과정 20개 과목을 신설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메트로 한줄뉴스



▲ 미 외국인 유학생, 재입국 거부 두려워 방학에도 귀국 못해 /사진 뉴시스
▲ 수단 새 총리 카밀 이드리스 취임선서식… 실권자 부르한외 주권위원회 밝혀

▲ 중국, 미 국방 상그릴라 대화 발언 반격…“미국이 아태 안정 해쳐”
▲ 유럽연합, 미국 철강관세 50%에 “강력 유감… 맞대응” 경고

▲ 미국프로농구 1순위 출신 자이언 윌리엄슨, 강간·학대 혐의로 고소당해
▲ 러시아 서부서 다리 붕괴 이은 열차 탈선…최소 7명 사망

교육부, 수능시행 기본계획 발표

2028학년도 ‘통합형 수능’ 치른다

‘통합사회·통합과학’ 필수 응시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해소 일부 문항 확대… 배점 세분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오는 2027년 11월 18일에 시행된다. 성적 통지일은 같은 해 12월 10일이다.

교육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8학년도 수능은 2023년 말 발표된 대입제도 개편안에 따라 새롭게 개편된 체제로 처음 시행되는 시험이다. 국어, 수학, 탐구 영역에서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모든 수험생이 동일한 과목과 문제로 시험을 치르는 ‘통합형 수능’이 핵심이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된 첫 수능이기도 하다.

국어 영역은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으로 구성되며, 수학은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가 출제 범위에 포함된다. 기존에 이과생들이 선택했던 미적분Ⅱ와 기하는 제외돼 문과 수험생과의 격차가 줄어드는 구조다.

가장 큰 변화는 탐구 영역이다. 기존에는 사회 9과목, 과학 8과목 중 최대 2과목을 선택해 응시했지만, 앞으로는 전 수험생이 공통과목인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필수로 응시해야 한다. 이로 인해 문·이과의 구분이 사라지고, 모든 학생이 동일한 탐구 과목을 공부하게 된다.

탐구 과목의 문항 수는 기존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늘어나고, 시험 시간도 과목당 30분에서 40분으로 확대된다. 문항당 배점도 세분화돼 1.5점, 2점, 2.5점 등으로 나뉜다. 수학 영역 역시 2점, 3점, 4점의 세 단계 배점 체계가 도입된다. 반면 국어와

영어는 기존과 같이 2점, 3점으로 유지된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9과목 중 하나를 선택해 응시하며, 문항 수와 시험 시간은 기존 30문항·40분에서 20문항·30분으로 줄어든다.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 방식이 유지되고, 국어, 수학, 통합사회·통합과학은 상대평가로 시행된다.

이번 통합형 수능은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를 해소하고, 고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수학 출제 범위가 문과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상위권 대학 입시에서 수학이 강한 이과 성향의 수험생이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제 원칙 등 수능 시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2027년 3월에 공고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 ‘서울형 강소기업’ 50곳 신규 지원

30일까지 ‘서울형 강소기업’ 모집 근무환경개선금·건설팅 등 혜택

서울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 중인 ‘서울형 강소기업’ 신규 참여기업 50곳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서울 소재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 중에서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고용 안정성, 복지혜택이 우수한 기업을 엄선해 서울시가 인증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353개 기업이 선정돼 서울시로부터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받고 있다.

올해는 청년 고용난이 심화됨에 따라, 기업 선정 기준이 전면 개편됐다. 기존 정량적 평가 위주에서 벗어나 기업 경쟁력, CEO의 리더십, 워라벨 실천 의지 등 성장잠재력을 종합적으로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son@

평가하는 ‘정성지표’를 신설해 기업의 우수성 평가 비중을 강화했다. 또한, 기업의 실질적인 청년친화 역량을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중복지고 산발적인 일자리 지표도 통합 및 조정했다.

우수한 청년 인재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 대상의 청년 연령 상한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

됐다.

선정된 기업에는 청년 정규직 채용 시 근무환경개선금(최대 4500만원), 재직청년의 성공적 직장 적응 지원(변아웃 예방, 조직문화 개선), 일·생활균형 교육·컨설팅 제공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시는 이러한 지원을 받을 ‘서울형 강소기업’을 2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하며, 50개 기업을 선정한다. 참여 자격은 서울시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 중 서울경제진흥원(SBA),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서울형 강소기업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서울시 누리집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 39조 2006억 추경예산안 제출

반도체 중심 미래 먹거리 투자

경기도가 올해 본예산보다 4785억 원 증액한 총 39조 2006억 원 규모의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지속된 경기 둔화로 위축된 도민 생활과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편성됐다. 도는

지역화폐 발행, 교통비 지원 같은 민생 분야부터, 반도체(팹리스) 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래 먹거리 투자, 통상 위기 대응을 위한 수출기업 지원, 주요 SOC 사업 투자 등 다각적인 분야에 재정을 집중한다.

예산안은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경기도는 이 기간 동안 도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예산안이 확정되면 각 부서별로 집행

계획을 수립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허승범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미래 산업 기반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도의회와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라며 “향후에도 심의 과정에서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심의 절차를 거쳐 예산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유진채 기자 yujin@



핫플 디저트
유명세프 요리도
급식 메뉴로
나

metro®

Life

호텔 '할짝'
여관 '한숨'
숙박업 양극화
L2



“거리 개념 바꾸는 기술 ‘물류’… 문제 해결형 인재 필요”



새벽을 여는 사람들

중앙대 국제물류학과장
김태영 교수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물류’는 단순한 운송을 넘어 기업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ESG 경영, 라스트마일 자동화, 인공지능 기반 수요 예측까지. 물류산업은 전환기 한가운데 서 있다. 이 같은 시대 변화에 맞춰 교육 현장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달 28일 중앙대 100주년기념관에서 진행된 <메트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김태영 중앙대 국제물류학과장은 “이젠 물류도 데이터를 다룰 줄 아는 문제 해결형 인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전엔 물류가 보조적 기능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을 지나며 기업들이 깨달았죠. 물류가 이익을 창출하는 전략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걸요.”

김 교수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리질리언스(회복탄력성) 있는 물류체계 구축’을 꼽는다. 예측 불가능한 물류비용, 급증한 컨테이너 운임, 지역별 정책 차이까지. 공급망 전략 전환 없이는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이다.

◆물류가 바뀌어야 기업이 산다

그는 국내 물류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의 후발 주자라고 진단했다. “제조업은 이미 자동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물류는 비교적 늦었어요. 하지만 이제 기업도 물류 디지털화를 통해 투자 대비 이익을 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죠.” 특히 최근에는 물류 산업에서 소프트웨어 기반 비저빌리티(가시성) 확보, 자동화 솔루션 도입, 물류 오퍼레이션 최적화 기술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다는 게 김 학과장의 설명이다.

유통시장 변화도 물류 혁신을 강제하고 있다. 김 교수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유통 매출의 40%가 온라인에서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커머스는 물류 없이는 불가능한 비즈니스”라고 단언한다.

그러면서 “특히 온라인 유통에서는 소량 다빈도 배송이 많고, 패키지별 작업이 필요해 자동화 없이는 운영이 어렵다”라며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던 걸 이제는 자동화와 로봇이 대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드론 배송과 자율주행 기술 확산보다 오히려 물류센터 내 자동화 확대가 더 시급하고, 현실적이라고 말한다. “드론은 인프라나 법규 제약이 있어 당장은 어렵지만, 물류창고 내부는 기업이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이죠. 실제로 아마존이나 국내 일부 기업은 로봇이 피킹하고 적치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배송의 편리함 뒤에 숨은 탄소 발자국

이커머스 시대에 라스트마일 물류는 편의성과 환경 부담이라는 양면성을 지닌다.



김태영 중앙대 국제물류학과장이 지난달 28일 중앙대 100주년기념관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물류, 운송 넘어 기업 핵심 축으로 부상
국내 물류기업, 디지털 전환 후발주자
배송기술보다 물류센터 자동화 시급

소비자 중심 체계, 탄소문제로 이어져
유통 효율 높이고, 환경문제 해결하는
‘도시형 무인택배함’으로 전환 필요해

물류 디지털전환, 중소기업에 더 절실
정부, 공유 물류센터 등 정책지원해야

시대 변화에 맞춰 교육환경도 바뀌어
데이터 다루는 문제해결형 인재 필요

김 교수는 “소비자 중심 물류 체계가 탄소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미래 물류는 도시, 소비자, 기업이 함께 만드는 생태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앙대 국제물류학과가 참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경제 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일환으로 진행 중인 헝가리 도시형 파슬라커(무인택배함) 프로젝트는 김 교수가 주목하는 대표적인 탈탄소 전략 중 하나다. “도심에서 이커머스 물류가 늘면서 라스트마일 배송이 교통 혼잡, 탄소 배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는 개별 기업이 설치하던 택배함을 도시 또는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모델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방식은 단순한 유통 효율화를 넘어서 환경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학과장은 “현재는 민간 기업이 각자 파슬라커를 설치하고 있지만, 확장성과 공공성이 떨어지는 구조”라며 “정부나 지자체가 인프라를 깔고, 여러 기업이 공유하도록 하면 중복 투자도 줄이고 시민 편의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선진국에서는 무인 택배함 이용이 일상화돼 있고, 한국도 점차 전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학생들이 지난해 6월 네덜란드에서 열린 공급망 관리(SCM, Supply Chain Management) 시뮬레이션 경진대회 ‘Global Student Challenge(GSC)’에 참가해 종합 2위를 차지했다. /중앙대

중소물류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언급했다. 김 학과장은 “디지털 전환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게 더 절실하지만, 초기 비용이 큰 게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공동 물류센터나 자동화 장비를 인프라 차원에서 구축하고, 중소기업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정부가 초기 3~4년을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중소기업도 물류 혁신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 맞춤형 인재, 물류 교육의 지형 바뀌

물류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현장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과거처럼 법·정책 중심 이론 교육에서 벗어나, 지금은 데이터 기반 실습 교육이 핵심이다. 김 교수는 ‘데이터 기반 물류관리 혁신’ 등의 수업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문제 정의, 최적화 모델링, 생성형 AI 코딩 실습까지 경험하게 한다.

“이제 중요한 건 코딩을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정의하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입니다. 목적 함수와 제약 조건만 사람이 명확히 설정하면, 해결은 AI가 도와줄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요.”

중앙대 국제물류학과는 산업공학 기반 최적화 소프트웨어 활용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애니로직, 심플렉스 등 산업용 알고리즘을 접목한 실습을 통해, 물류센터 인력 계획, 배송 라우팅, 시설 입지 결정 등 실무형 과제를 다룬다.

“중요한 건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느냐예요. 이게 바로 기업이 원하는 실무형 역량입니다.”

그는 최근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학생들이 참여한 국제 물류 시뮬레이션 대회에서 중국 칭화대를 제치고 종합 2위를 차지한 사례도 소개하며, “감에 의존하지 않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략을 수립한 점이 높게 평가 받았다”고 소개했다. 문제를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하며, 현실에 적용해 보는 과정을 반복한 끝에 나온 결과였다.

김 교수는 이러한 문제 해결 중심 교육의 필요성을 산업 현장의 변화에서 찾는다. 그는 “예전에는 반복적 작업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수요 예측, 탄소 시뮬레이션, 창고 최적 입지 선정 등 복합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라며 “머신러닝이나 최적화 알고리즘의 숙련도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풀어야 하는 문제로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통찰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물류는 거리의 개념을 바꾸는 기술입니다.” 김 교수는 ‘Death of distance(거리의 죽음)’이라는 개념을 언급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인터넷이 국경의 경계를 허물었다면, 물류는 그 과정을 현실화하는 수단이예요. 소비자는 단지 하루 배송이 좋아진 걸로 느끼지만, 실은 ‘거리’가 사라진 겁니다. 물류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가장 현실적인 기술입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조코비치, 프랑스오픈 16강 안착…메이저대회 25회 우승 도전 /사진 뉴시스
▲‘챔스 우승’ 이강인과 중동 리거들, 이라크 현지서 홍명보호 합류

▲토티넘 손흥민처럼…파리 생제르맹 마르퀴노스, 입단 12년 만에 빅이커 ‘번쩍’
▲범보종찰 해인사, 호국보훈의 달 맞아 고 김영환 장군 호국추모제

▲민속국악원, 김일구·송재영과 ‘소리 판 명창 무대’
▲“부처님과 함께 투표해요”…불광출판사 투표인증 용지 공개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공장식구들 안 쿨하겠다는 신념 하나 믿어 주신 거죠

폐업 위기의 안료 회사를 덜컥 인수하고
내 공장을 짓겠다는 무모한 꿈까지
처음으로 믿어준 곳이 KB였어요

가족 같은 직원들 굶기지 않겠다는
제 신념을 묵묵히 응원해 준
KB와 함께한 세월이 40년이 넘었네요

그때도 지금도
저에게는 친정 같은 곳입니다

국민의 꿈에 귀 기울이는 금융
KB금융그룹이 지켜가겠습니다

Korea Basic
KB금융그룹

| 우신티그먼트 대표 장성숙 | (주)우신티그먼트는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국내 안료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KB금융그룹